

훨훨 나는 NFT 관련주... “과열” vs “재테크 수단” 의견분분

3분기 NFT 거래규모 12조5852억 엔씨소프트 등 NFT 관련주 급등세 일각서 재테크 수단 활용 여부 우려

최근 NFT(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주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다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NFT 거래 규모는 106억7000만달러(약 12조5852억원)로 전분기 대비 704%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게임사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위메이드, 펠어비스 등이 NFT를 게임에 도입한다는 소식이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지난 11일 가격제한폭(29.92%)까지 치솟은 78만6000원에 마감했다.

엔씨소프트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



엔씨소프트 전경.

난해 대비 반 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중 NFT가 적용된 게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상승했다.

대표적인 NFT 수혜 게임주인 위메

이드도 날아 올랐다. 위메이드는 NFT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 글로벌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주가는 8월 30일 상한가로 시작해 이날 초까지 연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2일 기준으로는 한 달 새 9만500원에서 18만8900원까지 두 배 이상 뛰었다.

엔터 대장주인 하이브도 NFT 사업 진출을 공식 발표한 지난 5일에 전 거래일보다 7.57% 급등한 38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엔씨소프트에 대한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다. KTB투자증권은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기존 8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도 목표주가를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NFT 기술의 과열 거품과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활용 여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과열 거품이 꺼질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NFT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는 의견이다. 소유권만 있을 뿐 실질적 권리 행사에 대한 부분은 법적

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우려다.

삼성증권은 “NFT라는 단어가 등장만 해도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테마 장세에 편승하지 못했다고 한국 시장만 소외됐다며 비판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급등 테마에 편승하기보다 시장이 반등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1일 개인투자자가 엔씨소프트 주식 70만주를 매수하고 20만주를 매도해 총 50만주를 순매수하는 거래가 이뤄지며 급락이 반복돼 작전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을 기점으로 엔씨소프트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가 다음날 개인투자자가 대규모 매수를 한 정황이 나타나며 9% 이상 급락해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엔씨소프트의 단일계좌 대규모 거래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강력한 콘텐츠’가 무기... 韓 시장 출격

metro 관심종목

월트 디즈니

후발 주자임에도 가입자 유치 빨라 최대 4명 동시접속... 월 9900원

월트 디즈니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디즈니플러스(디즈니+)가 한국 시장에 상륙했다. 디즈니플러스는 마블, 디즈니, 스타워즈 등 강력한 콘텐츠를 앞세우는데, 주가 향방에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월 9900원 또는 연간 9만9000원으로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TV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월 9900원만 내면 4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해 기존 OTT 강자였던 넷플릭스(4인 시청 가능·1만4500원)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다.

디즈니플러스는 넷플릭스의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글로벌 유료 가입자를 유치하는 중이다. 1억명의 유료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넷플릭스가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 반면, 디즈니플러스는 1년 반이 걸렸다. 현재 디



디즈니플러스

즈니플러스의 가입자는 1억2000만명에 달한다. 마블, 디즈니, 스타워즈, 픽사,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강력한 콘텐츠가 유료 가입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디즈니의 주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다. 실적 부진과 디즈니플러스 유료 가입자 성장 둔화가 그 이유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디즈니는 전 거래일보다 2.48달러(-1.53%) 하락한 159.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디즈니의 4분기(9월 결산법인·7~9월) 디즈니플러스 구독자 수는 1억 181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210만명 증가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는 1억3300만명이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콘텐츠 제작 차질로 신규 콘텐츠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원

인이다. 반면, 증권가는 디즈니의 추가 상승 여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디즈니플러스는 현재 꾸준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디즈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이라는 분석이다. JP모건은 목표가로 220달러, 블룸버그는 199.75달러를 제시했다.

유중호 KB증권 연구원은 “디즈니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35.4배이며 주당순이익 2021~2023년 연평균성장률(CAGR) 47.3%를 적용한 주가이익성장비율(PEG)은 0.75배로 나타났다”며 “폭스 2.1배, 넷플릭스 1.25배보다 낮아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분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한양증권, 3분기 누적순익 74% 증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968억

한양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67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급증했다. 순이익도 3분기 누적 67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은 3분기까지 전년 대비 79% 늘어난 6576억원을 나타냈다.

부문별로 한양증권은 자산운용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89% 가량 늘어난 5116억원을 기록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투자은행(IB)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영업과 채권

발행시장(DCM) 부문의 활약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브로커리지(주식중개) 부문에서도 같은 기간 9% 증가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2021년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부문 전반에 걸쳐 고른 실적 증가를 달성했다”며 “균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임재택 한양증권대표이사는 사내 인터넷 CEO 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한양증권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한 해”라며 “지속 성장하는 최고의(Supreme) 강한 증권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 분양

8개동 총 452가구 규모

제일건설(주)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 건분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다.

14일 제일건설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8개동 총 45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118㎡로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형부터 희소성 높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04가구 ▲84㎡B 188가구 ▲84㎡C 54가구 ▲118㎡A 106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청약, 2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3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는 단지와 인접해 있는 경의중앙선,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통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수도권광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투시도. /제일건설

역철도노선(GTX)-A노선(예정) 뿐만 아니라 오는 2026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파주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내 어린이집(예정)은 물론, 단지 주변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가 모두 들어선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마트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운정3지구 상업용지(예정)도 가깝다.

인근에는 파주출판단지, 문발산업단지, 파주LCD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 단지가 많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등 각종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예고됐다.

/정연우 기자

전국 7729가구 분양... 81%가 수도권

분양 캘린더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9곳에서 총 7729가구(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분양을 시작한다.

14일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체 일반분양 물량 중

6286가구(81.3%)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신길 AK 푸르지오’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앞서 분양한 오피스텔이 평균 1312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만큼 이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청약에도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송도자이 더 스타’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총 1533가구 전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되며, 전용 85㎡ 초과 물량(395가구)에 대해서는 추첨제 50%가 적용돼 가격이 낮은 수요자도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단 4곳이 분양한다. 부산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대구 ‘더샵 동성로센트리얼’ 등이 공급된다. 건분주택은 2곳에서 개관하며 당첨자 발표는 14곳,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yw964@